

화순 '산죽 산양삼 테마공원' 조성

동북면 유천리 모후산 일대 16ha

국비 50억원 확보... 2012년 완공

화순군 동북면 유천리 일대 16ha에 '산죽(山竹) 산양삼 테마공원'이 조성된다.

화순군은 지난 3일 농림수산식품부 주관의 농업·농촌 테마공원 조성사업 공모전에 '산죽 산양삼 테마공

원 조성 및 마을정비'사업이 선정돼 사업비 50억원을 확보했다.

군은 올해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2009년 실시계획을 거쳐 2012년까지 4년에 걸쳐 추진할 계획이다. 모후산 일원에 조성되는 산양삼 테

마공원에는 고려인삼 시배지(개삼터) 및 산양삼 재종포 단지가 들어서고 산양삼 박물관이 건립된다.

또 농산물 판매장, 숙박시설 등 기반시설과 휴양·체험, 소득 확충시설, 유천리 마을 주거환경 개선, 진입도로 확·포장사업 등이 추진된다.

전완준 화순군수는 "산죽 산양삼 테마공원 조성으로 관광 수입과 농산물 판매소득, 숙박 등 직접 효과와 문화관광(CT)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말했다.

한편 화순군은 지난해 10월 특허청에 '산죽 산양삼' 상표등록을 마치고 지역 대표 브랜드로 육성하고 있다.

화순 모후산은 고려 인삼을 최초로 재배한 곳으로 알려져 있으며 당시 생산했던 동북삼은 최고 품질을 인정받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산양삼은 장뇌삼으로도 불리며 산삼이나 인삼씨를 산에 심어 자연적으로 자라게 한 뒤 채취한다.

/화순=조성수기자 css@



매화꽃 사이로 봄 소식이... 강진군 신전면 한 농로에 매화꽃이 만개했다. 봄 기운이 완연해지면서 남도 들녘에서는 농민들이 과수원 옷거름 주기와 가지치기 등 올 농사 준비에 나서고 있다.

강진군 신전면 한 농로에 매화꽃이 만개했다. 봄 기운이 완연해지면서 남도 들녘에서는 농민들이 과수원 옷거름 주기와 가지치기 등 올 농사 준비에 나서고 있다. <강진군 제공>

장성군 농협 연합RPC 준공

郡·7개 단위 농협 공동 출자... 500t급 4기 갖춰

장성군의 고품질 쌀 저장 및 가공의 핵심시설인 '장성군 농협연합RPC'(미곡종합처리장)가 준공돼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장성군과 농협 장성군지부는 5일 장성진원농협RPC에서 '장성군농협연합RPC' 준공식을 가졌다.

장성군 농협연합RPC는 장성군과 장성군 관내 7개 단위 농협이 공동 출자해 기존 진원농협RPC를 증설한 것으로 500t급 저장시설 4기를 갖췄고 있다.

장성군 농협연합RPC 준공공사는 지난 2006년 민선4기부터 장성군이 역점시책으로 추진해 온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 5개년사업'의 1차년도 시설 현대화 및 규모화 사업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장성군 농협연합RPC는 이날 준공식을 가진 진원면 1공정외에 지난해 12월 완공된 삼서면의 친환경쌀 가공시설인 2공정이 있다. 장성군의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 5



장성군 농협연합 미곡종합처리장(RPC) 준공식이 이 청 군수와 김상복 군의회 의장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5일 진원농협에서 열렸다.

개년사업은 2011년까지 시설 현대화 및 규모화에 178억원, 고품질 쌀 생산에 110억원 등 288억원을 투입해 군 전체 벼 생산량의 50%를 고품질 쌀로 전환·유통시키는 대형 프로젝트다.

장성군 관계자는 "올해 장성군 농협연합 RPC를 조합공동의 독립법인

으로 설립하고 농림부 100대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사업에 신청, 선정받을 계획"이라며 "호평벼 계약재배를 600ha로 확대해 상품등급 능력을 강화함으로써 유통시장에 본격 진출하겠다"고 밝혔다.

/장성=정필수기자 bungy@

함평축협 '대상'

축산물품질경영 부문

무이자 자금 5억 받아

함평축협이 지난 4일 농협중앙회로부터 축산물 부문 품질경영 대상을 수상, 부상으로 무이자 자금 5억원을 받았다.

함평축협은 농협중앙회가 전국 회원 농협을 대상으로 축산물 계통출하 및 공동판매, 성장도, 브랜드육 판매 실적 등을 종합 평가한 결과 높은 점수를 받았다.

축산물 품질경영 대상은 축산조합을 산지 축산물 생산·유통의 실질적인 주체로 육성하고 대내외 유통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농협중앙회 주관으로 제정·시행하고 있는 포상 제도다.

임희구 조합장은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고품질 안전 축산물 생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평=박영진기자 py4079@

"농가 일손 확~ 덜어 드리겠습니다"

나주시, 선거운동 시비 일단락

'인력은행' 가동해 공동 급식도

나주시가 지난해 선거법 저촉 논란으로 백지화됐던 급식 도우미 사업 등 농번기를 앞두고 농가일손을 덜어주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

나주시는 농번기에 부족한 영농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오는 6월말까지 인력은행을 운영하기로 했다.

시는 이달 25일까지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을 중심으로 일손돕기에 참가할 희망자 모집에 나선다.

시는 인력은행 참가자를 대상으로 배봉지 씨우기 등 영농기술이 필요한 작업은 기술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배 주산지인 나주시지역은 개화시기에 맞춰 인공수분

과 열매 숙아내기, 봉지 씨우기 등 짧은 기간에 인력이 집중 투입돼 일손부족이 심화돼 왔다. 인력은행 참가자에게는 작업에 따라 4만~7만원의 일당과 종식, 교통비 등이 지급된다. 또 이들이 시 지역 농·특산물 전 시판매장에서 농산물을 구입할 경우 10% 할인과 농사체험 기회도 부여된다.

시는 이와함께 지난해 관련 조례 제정 미비 등으로 중단됐던 마을공동 급식사업을 올해 재개, 30여개 마을에 급식 도우미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농사일로 바쁜 마을에 새참이나 점심 등을 대신 지어주는 급식 도우미를 파견, 여성 농민의 일손을 덜어주는 것으로 주민 공동체 의식 제고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나주시는 지난해 말 급식 가능한 주민이 20명 이상이고 자체적으로 음식재료 조달이 가능한 마을을 대상으로 음식 도우미 파견이 가능토록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나주=정철형기자 chung@

영암군·日 히라카타시 '우호 제휴'

광산군, 화장 유족에 '영모 장려금'

영암군이 왕인박사 묘가 있는 일본 히라카타시(枚方市)와 '우호도시 제휴 조인식'을 가졌다.

영암군은 지난 1일 일본 히라카타시 시민회관에서 시민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호도시 제휴 조인식을 갖고 양 지역 시장·군수의 의정서 서명 및 시·군기를 교환했다.

히라카타시는 오사카부 북동부에 위치한 인구 40만명의 오사카부 4대 도시 중 하나로, 왕인박사의 묘(오사카부 사적 제13호)가 있는 곳이다. 영암군은 이번 우호도시 조인식이 일본인 관광객 유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오는 4월 5일 열리는 왕인문화축제 개막식에는 일본 히라카타시 사절단이 방문, 우호도시 제휴 조인식 선포 및 의정서 교환, 한·일 상생프로젝트-왕인천자문떡 행사 등에 참가할 예정이다.

/영암=박진표기자 lucky@

광산군이 화장한 유족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광산군은 장묘문화화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2006년 3월부터 화장한 유족에게 사망한 사람을 영원히 추모하고 기린다는 의미의 '영모(永慕)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시행 초기인 2006년에는 11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93건, 올 2월말 현재 20건이 신청됐다.

지급 대상은 사망일 3개월 전부터 광산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유족에게 10만원이 지급된다.

신청 방법은 사망 후 화장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화장증명서를 첨부해 사망자 거주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광산군은 올해 영모 장려금 지급 건수가 120건을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광산=기원태기자 wtkee@

'clean-장흥' 이미지 구축

장흥군, 부패방지 민·관협의회 구성

장흥군이 'clean-장흥'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중 처음으로 '부패방지 민·관협의회'를 구성했다.

장흥군은 지난 4일 사회단체, 언론계, 여성계, 주민대표 등 민간인 6명과 회계·감사·공사분야의 실과장 단원적 4명을 포함, 10명으로 구성된 '장흥군 부패방지 민·관 협의회'를 구성하고 정식활동에 들어갔다.

부패방지 민·관 협의회 위원들은 ▲공직자들의 부정행위 감시 ▲부패방지를 위한 제안 및 의견수렴 ▲군정 문제점 발굴 및 개선사항 등을 협의하게 된다.

군은 주민 편에서 방철하게 비판과 감시역할을 상시 제안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평소 군정에

관심이 많고 개혁적인 인사들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장흥군이 부패방지 민·관 협의회를 전국 최초로 구성하게 된 것은 국가 청렴위원회 주관 '2007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도내 22개 시·군 가운데 하위권이라는 불명예와 최근 발생한 일부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군 이미지가 크게 실추된데 따른 것이다.

/장흥=김용기기자 kykim@

조루, 발기부전, 전립선... 한방으로 치료

장흥병원, 하루 2건 진원내방으로 장년 남성에게 고민 해결

장흥병원 장흥내방은 장흥군에 거주하는 60대 이상의 남성에게 하루 2건 진원내방을 통해 장년 남성에게 고민 해결을 도와주고 있다. 장흥병원 장흥내방은 장흥군에 거주하는 60대 이상의 남성에게 하루 2건 진원내방을 통해 장년 남성에게 고민 해결을 도와주고 있다.



장흥병원 장흥내방은 장흥군에 거주하는 60대 이상의 남성에게 하루 2건 진원내방을 통해 장년 남성에게 고민 해결을 도와주고 있다. 장흥병원 장흥내방은 장흥군에 거주하는 60대 이상의 남성에게 하루 2건 진원내방을 통해 장년 남성에게 고민 해결을 도와주고 있다.

장흥병원 장흥내방은 장흥군에 거주하는 60대 이상의 남성에게 하루 2건 진원내방을 통해 장년 남성에게 고민 해결을 도와주고 있다. 장흥병원 장흥내방은 장흥군에 거주하는 60대 이상의 남성에게 하루 2건 진원내방을 통해 장년 남성에게 고민 해결을 도와주고 있다.

장흥병원 장흥내방은 장흥군에 거주하는 60대 이상의 남성에게 하루 2건 진원내방을 통해 장년 남성에게 고민 해결을 도와주고 있다. 장흥병원 장흥내방은 장흥군에 거주하는 60대 이상의 남성에게 하루 2건 진원내방을 통해 장년 남성에게 고민 해결을 도와주고 있다.

장흥병원 장흥내방은 장흥군에 거주하는 60대 이상의 남성에게 하루 2건 진원내방을 통해 장년 남성에게 고민 해결을 도와주고 있다. 장흥병원 장흥내방은 장흥군에 거주하는 60대 이상의 남성에게 하루 2건 진원내방을 통해 장년 남성에게 고민 해결을 도와주고 있다.

난방기와 에어컨을 1대로..

난방비 1/3로 줄었다!

난방비를 1/3로 줄여주는 TEMPIA 난방기. 기존 난방기보다 1/3로 난방비를 줄여주는 TEMPIA 난방기. 기존 난방기보다 1/3로 난방비를 줄여주는 TEMPIA 난방기.

- 1. 난방비 1/3로 줄여준다
- 2. 공기청정 기능이 있다
- 3. 온수 공급이 가능하다
- 4. 방열판이 있다
- 5. 안전 기능이 있다
- 6. 디자인이 아름답다
- 7. 설치 및 유지보수가 쉽다

TEMPIA 080-252-7117